

코로나19로 연기·취소된 행사 다시 열리나

“집단행사 취소·연기할 필요 없어” 정부 지침 따라 제주도, 개최 여부 재검토... 방역 대책도 마련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단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내 행사,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코로나19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

건소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여러 행사에 대

해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개최 시행될 방역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점검 ▷비상연락망 구축 ▷개인 보호용품(보건용 마스크·일회용 장갑) 확보·비치 ▷의심환자 발생 대비 의료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집단행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감염 예방 홍보 등도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국내

선 발원 감시카메라 설치, 집중관찰 대상자 관리,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 등 질병관리본부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행사 87개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소가 50건, 연기 36건, 검토 1건 등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청년정책은 많은데... “컨트롤타워 없다”

제주연구원 청년취업 연구 통합형 조직 설립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내 청년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설립과 고졸취업자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이종화 책임연구원은 13일 ‘제주지역 청년취업 현황과 정책대응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년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사업은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진로탐색, 직무능력키우기, 일경험 기회, 해외취업 등으로 구분되고 지자체의 사업은 취업지원·생활복지·창업지원·주거금융 등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청년정책 관련 사업수는 46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으나 다른지역 대비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분야의 사업비중이 높은 반면 생활복지와 주거금융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2018년)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 인구

(18-34세)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제주지역 청년층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하반기 제주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7만 2900명으로 91.46%, 비임금 근로자는 6800명으로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수도권 대학진학률은 19.4%, 비수도권 대학진학률은 28.6%, 출신지역 대학진학률은 52.1% 수준을 보였다.

제주지역 출신이 비제주지역 출신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직 의향 역시 제주지역 출신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비제주지역 출신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의 만족도, 이직의향, 전공일치도 등 요소를 고려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학·공학 분야의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출신이 비제주 출신에 비해 좋은 일자리 접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청년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제주지역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형 전담조직구축 필요, 제주대내일센터의 사업과 관련해 청년범위 확대, 고졸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주문했다.

고대모기자

중도·보수신당 ‘미래통합당’ 상징색은 ‘밀레니얼 핑크’

자유한국당이 13일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통합 신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하고 16일 출범식을 갖기로함에 따라 그동안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새단장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신설 합당을 결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중도·보수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했고, 당 상징색은 ‘밀레니얼 핑크(분홍)’로 정했다.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도 신당 출범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상징색인 빨간색이 들어간 점퍼와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에 나서왔던 만큼 새로운 당명과 당색깔로 교체하는 번거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도당 관계자는 “도당 차원에서는 24일부터는 점차적으로 당명과 당색깔을 교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19 회의 참석한 대기업 대표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인력 87명 증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 지휘·임용권 지사에 위임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 게 위임돼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소방안전본부는 부지사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된다.

또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

년부터 총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 받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총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이 증원돼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열리는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 원도심 빈집 전수조사... 활용 모색

행복주택 신축 등 방안 고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화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도심속의 빈집(공·폐가) 정비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도심지내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바 시급하고 건축주가 동의한 건축물에 대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등으로 활용할 대상을 우선

정비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할 대상지에 행복주택 신축 등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매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 5동을 철거했다. 하지만 빈집 철거예산 부족으로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의 매입의사를 확인, 매입 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입 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제주시을 ▷오영훈 ▷5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제주시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록고유번호 339-80-01535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 안내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약칭 “제주도행정사협회”)가 2020년 2월 5일 자로 창립되었습니다.

제주도행정사협회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편의 도모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대한행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 현석교, 부지부장 : 이경배, 김상희
 이 사 : 고보건, 김병찬, 김석근, 김시중, 김인석, 양행수, 박용모, 김익수, 김중철, 오영복, 황태희, 김승범
 감 사 : 이태철, 김시원 사무처장 : 유종인

행정사가 하는 일!

- ✓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영양·면허정지, 취소 등)
- ✓ 토지 공익사업 손실보상,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업무 대행
- ✓ 출입국업무, 자동차등록업무, 행정관청 보조금 신청 대행
- ✓ 비영리법인 등록,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 대리
- ✓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사실조사 대행
- ✓ 각종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및 추진 대행
- ✓ 기타 행정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담 가능

행정사 회원모집 안내

- ✓ 자격 : 행정사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 거주하시는 분
- ※ 행정사 「기본 및 실습교육, 상담현명」
- ✓ 모집기간 : 년중 수시(10:00~18:00, 공휴일 제외)
- ✓ 문의처 : 협회 사무처 (☎ 010-9899-1895, 사무처장:유종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공원길 24(이도동)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이모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황이상 질병의 방제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재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면적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